

학교 운동부 특별점검...성폭력·폭력 근절

교육부 운영실례 등 내달말까지 광주 132개교·전남 224개교 학부모 부담금 사용처도 조사

교육 당국이 체육계 성폭력·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학교 운동부에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학생 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2차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운동부(성)폭력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모든 학교 운동부에 대해 2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별이도록 했다. 운동부 운영과 합숙훈련 전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며, 필요에 따라 동계 전지훈련 현장 방문조사도 벌인다.

광주에서는 초중고 132개 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 중이다. 선수 2200명, 지도자 180명 규모이며 운동부 학생기숙사(일명 합숙소)를 운영하는 학교는 14개교다. 전남은 초중고 224개교에서 선수 3200명, 지도자 312명이 운동을 하고 있다. 운동부 학생 기숙사 68곳이 운영 중이다.

이는 교육부·국가인권위·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이 함께 학생 선수 6만3000여명을 전수조사하는 것과는 별개다.

현행 지침에 따라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인권 및 성폭력·폭력 예방 교육이 연 1~2회 시행되고 있는지, 학생 선수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연 2회와 상담 활동 월 1회가 시행되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학부모 부담금이 학교회계로 문제 없이 편입되는지, 학생 선수에 대한 인권·학습권 침해는 없는지 등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학생 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에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이 진행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전원에게는 학기 시작 전까지 성폭력·폭력 예방 교육을 완료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 및 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비리가 밝혀진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학교나 시·도가 경기단체에 징계를 요구했던 것을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요구하도록 변경하고, 징계 이력은 교육부와 문제부가 공유하기로 했다. 비위

가 밝혀진 지도자를 학교 차원에서 자체 조사해 사표만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비리 신고를 의무화하고 징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비리 지도자 재취임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상징 지상주의'와 과도한 경쟁·훈련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도 개선한다. 전국체육대회와 통합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도 대회와 통합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도 대회가 아닌 축제 형식으로 전환한다.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학생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사관리와 최저학력제 내실화 등을 강화하고, 체육특기자 선발에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내년 시행 예정인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도 현장에 정착하도록 점검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입춘방 써 보세요"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立春)을 일주일 앞둔 28일 오전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서 북구노인복지센터 서예반(회장 이무수) 회원들이 중흥어린이집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이라는 입춘방 쓰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34명·전남 336명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 합격자 발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28일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합격자를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모두 377명이 지원해 34명이 최종 합격했다. 분야별 합격 인원은 유치원 교사 13명, 초등 교사 10명,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5명, 특수학교 초등 교사 6명이다. 전남에서는 896명이 지원해 336명이 합격했다. 유치원 54명, 초등 256명, 특수(유치원) 5명, 특수(초등) 21명이다.

초등 교사 합격자 가운데 남성 교사는 광주 10명 중 5명, 전남 256명 중 105명(41%)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 합격자는 전남은 전체 54명 가운데 여성이 52명, 광주는 13명 전원이 여성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특수교사 합격자는 전남의 경우 26명 가운데 여성이 23명, 광주는 11명 모두 여성이었다.

합격자들은 다음 달 11~19일 광주 교육연수원, 같은 달 11~15일 전남 교육연수원에서 열리는 지역별 연수를 거쳐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임용된다. 그러나 임용적체 현상 탓에 오는 3월 초등 교사들의 새 학기 임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만 광주 7명, 전남 76명이다. 신규 합격 인원까지 더하면 광주 17명, 전남 332명이 발령을 기다리는 셈이다. 합격자들은 1년 이상 장기 휴직 등 결원이 생기면 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미세먼지 저감 인공지능 첫 실험 결실 없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해상에서 실시한 인공지능 첫 실험(사진)이 실패로 끝났다. 다만 기상청과 환경부는 이번 실험이 성패 여부를 떠나 인공지능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기술 축적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5일 영광군 북서쪽 110km 바다 위에서 기상항공기(키에어 350)를 이용해 실험한 1차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가뭄 등에 대비한 인공지능 실험은 이뤄졌지만,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영광군 1.5km 상공에서 요오드화은(Agl) 연소탄 24발(3.6kg)을 살포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물질살포 지점의 구름 속 강수 입자의 성장을 확인했지만, 기상선박이나 지상 정구 관측망에서 비나 눈은 관측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인공지능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영광지역에서는 강수가 관측되지 않았다"면서도 "영광에 있는 모바일 관측 차량에서 몇분 동안 약한 안개비 현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기상 선박 주위 해상에서도 비를 포함한 구름이 목격돼 정밀 분석 중이다.



이들 기관은 실험 내용을 분석한 뒤 다음달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기상청과 환경부는 '2019 운항계획'에 따라 기상여건을 분석해 15차례의 인공지능 실험을 할 계획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4	달뜨기	01:48
해질	17:57	달짐	12:51

오전 맹추위
맑은 가운데 아침기는 떨어지고 바람 강해 춥겠다.

광주	구름많음	-4/10	보성	구름많음	-5/8
목포	구름많음	-3/6	순천	구름많음	-3/10
여수	구름많음	-1/8	영광	구름많음	-6/6
나주	구름많음	-6/9	진도	구름많음	-3/6
완도	구름많음	-1/9	전주	구름많음	-5/7
구례	구름많음	-8/10	군산	구름많음	-7/5
강진	구름많음	-3/9	남원	구름많음	-7/9
해남	구름많음	-5/8	흑산도	구름많음	2/6
장성	구름많음	-7/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면바다(동)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면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0~1.5

◇생활지수

뇌졸중	매우 높음
감기	매우 높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1:15	08:47
	13:56	20:57
여수	09:48	03:51
	22:11	15:46

◇주간 날씨

30(수)	31(목)	2/1(금)	2(토)	3(일)	4(월)	5(화)
☁	☁	☁	☁	☁	☁	☁
-2/10	1/4	-4/5	-3/7	2/8	1/8	-1/7

오늘 최저 영하 7도 기온 뚝...내일 밤 비 소식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광주·전남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28일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장성·담양·구례·곡성 등 일부 지역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오전 동안 추위가 맹위를 떨치겠다.

이날 광주·전남은 북서쪽에서 발달한 찬 공기로 인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에서 영하 7도의 분포를 보이고, 바람

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도 더욱 낮아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30일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비와 함께 30일 오전 일부지역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이다.

또 현재 여수·순천·광양·구례 등 전남 동부권 4개 시·군에 건조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한 날씨(실습습도 25~35%)가 지속돼 산불 등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충장축제 4년 연속 대한민국콘텐츠 대상

광주시 동구는 "제15회 추억의 충장축제"가 "2019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4년 연속 콘텐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올해로 7회째 열리고 있으며 매년 전국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대상 시상식이다.

지난해 열린 '제15회 추억의 충장축

제'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일정은 5일에서 4일로 줄었음에도 KT 빅데이터 분석결과 28만2000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으로 평가 받았다. '추억! 세대 공감'을 주제로 서커스와 청바지를 콘셉트로 다양한 서커스·마술쇼, 충장 거리퍼레이드, 추억의 테마거리, 추억의 고고장, 아시아음식페스티벌 등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융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자가용태양광 남는 전력 100% 판매

- 주택, 상가, 공장, 슬라브, 마당, 토지에 태양광 설치하여 한전과 상계거래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방식
- 빌딩, 창고, 상가, 주택 등에 자가용으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라도 쓰고 남는 전기를 시장에 판매하면 REC+SMP가 적용된다. (20년 장기계약 가능)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15KW설치시 예상수익

기존사용량 (KW)	청구금액	태양광설비 후 예상청구금액	설비 후 발전량 (예상발전량-기존사용량)	판매수익 (SMP+REC+전기료절감액)
150	12,390원	2,210원	1,650KW/h	322,259원
200	17,690원	2,210원	1,600KW/h	317,740원
300	44,400원	2,210원	1,500KW/h	324,743원
400	65,760원	2,210원	1,400KW/h	325,805원
500	104,140원	7,090원	1,300KW/h	343,718원
600	136,050원	17,690원	1,200KW/h	355,170원

▶ 자가소비량은 기존 사용량의 40%계산됨
▶ 월 예상발전량은 15KW×4시간×30일=1,800KWh로 월 계산
▶ 판매수익은 SMP+REC+태양광설비후 예상절감액 포함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광주지사 010-5655-5678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앙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 010-8605-2740